

범여권 '중도 통합론' 급부상

우리당-민주당-국중당 일부 추진 정동영 전 의장·이인제 의원도 찬성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연쇄 탈당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여당 의원들과 민주당, 국민중심당 일부가 주축이 된 중도세력 통합 움직임이 급부상하고 있어 정치권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정동영 열린우리당 전 의장과 이인제 의원도 중도개혁 및 국민통합 움직임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나타내 중도통합 모임에 힘을 더했다.

24일 김효석 민주당 원내대표는 "열린우리당 의원들과는 어제 점심을, 국민중심당 신국환 의원과도 어제 저녁을 같이하고 '중도통합 추진을 위한 모임'을 공개적으로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이르면 이번 주 내에 모임을 발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한, "중도통합 모임의 방법과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내가 중재역으로 나서 최종 합의를 도출하기로 했다"며 "중도통합 모임은 열린우리당 4명, 민주당과 국중당에서 각각 2명씩 참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도통합 모임 참여 인사로는 우선 열린우리당의 정장선, 최홍규, 이종걸, 조배숙 의원과 민주당 김효석, 이

낙연 의원, 국중당에서는 신국환, 김낙성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들은 탈당보다는 일단 현재의 당적을 유지한 상태에서 좌우 양 극단을 배제한 중도세력의 대통합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임종인, 이계안, 최재천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의 개별적인 탈당 움직임과는 다른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열린우리당 차기 의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정세균 의원과 당내 중도파 의원 그룹에서는 중도통합 모임의 취지는 찬성하지만 시기를 전담대회 이후로 미뤄달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김효석 의원 등은 29일 열린 당 중앙위원회 결정 여부에 따라 집단 탈당 움직임도 있는 만큼 당장 이번 주 내에 공식적인 활동에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집단 탈당이 현실화된다면 열린우리당이 사실상 분당되는 결과를 초래, 결국 중도통합 모임이 순조롭게 운영되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도통합 모임이 이달 내에 현실화된다면 당장 내달부터는



우리당 도당 긴급 간담회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탈당 도미노'가 찬양한 가운데 통합신당파인 유선호 전남도당위원장은 24일 오후 도당 회의실에서 '현 시국과 개혁세력의 진로에 대한 긴급 간담회'를 갖고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중도통합신당 창당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거쳐 3월에는 통합신당 준비위를 구성하고 4월 재·보선에서 승부수를 던져 대선 정국의 분위기를 반전시키기로 관측되고 있다.

이와 관련 임종석 의원은 이날 "김효석 원내대표와 충분히 대화를 통해 생각을 확인했고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으며 송영길 의원은 "신뢰가 있는 사람들과 책임 있게 논의하는 테이블을 만들어보자는 것"이라고 중도통합 모임에 적극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정동영 전 의장은 이날 오전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범여권 중도통합 움직임과 관련, "중요한 것은 이른바 개혁·평화·미래 세력이라고 할 때 서로 손을 잡고 가야 할 것"이라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인제 국중당 의원도 자신의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좌우 낡은 이념으로부터 자유로운 개혁정당, 지역패권을 극복하고 국민을 통합시키는 정책정당이 전부터 주장해 온 제3의 정치세력"이라면서 "이 같은 정당의 건설을 위해 헌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때 대해 법원은 "변호인측이 정식으로 위헌심판

'유신 긴급조치' 위헌 여부 인혁당 변호인단 헌소 추진

현재서 어떤 결론 내릴지 귀추 주목

32년만에 피고인들에게 무죄가 선고된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인혁당 재건위) 사건 변호인단이 당시 대통령 긴급조치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유신정권 당시 만들어져 역사와 함께 묻힌 대통령 긴급조치에 대한 위헌성 문제가 뒤늦게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질 여지가 생기기 때문이다.

고 우홍선씨 등이 사건 피고인 8명의 변호인인 김형태 변호사는 24일 "피고인들에게 적용됐던 긴급조치 제1호와 제4호에 대해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소(訴)를 제기하기 위해 전담팀을 꾸릴 예정이다"고 밝혔다. 앞서 변호인측은 이 사건 재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에 긴급조치의 '위헌성'을 무죄의 근거라고 주장한 바 있다.

유신헌법에 반대하는 일체 행위를 금하고 위반시 영장 없이 구속이 가능하다고 한 긴급조치 제1호와 민청학련에 동조하는 활동을 금지한 긴급조치 제4호가 위헌이므로 이를 근거로 기소된 피고인들도 당연히 무죄라는 게 변호인측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변호인측이 정식으로 위헌심판

제청 신청을 낸 것도 아닌 데다 법률 이상의 효력을 가졌던 긴급조치에 대한 위헌성을 따지는 것은 범원의 권한이 아니다"며 별도의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그러나 이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통과해야 할 관문이 여럿이다. 헌법소원 청구기간을 넘긴 이유는 물론 이미 없어진 법규 때문에 현재에도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기본권이 침해되는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로 제한되기 때문에 변호인측은 이 기간을 한참 넘기도록 소송을 못 낸 사정을 타당하게 제시해야 한다.

폐지된 법률도 위헌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이미 현재의 관련 관계가 나와 있다. 박정희 정권 당시 대통령에게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조건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해 놓았던 국가보위에 관한특별조치법이 1994년 현재의 위헌 결정을 받은 것이 그 대표적 사례다.

반면 이미 역사 속에 묻힌 옛 헌법을 위한 판단의 근거로 삼는 것은 과거사 조명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헌법소원의 취지인 권리구제와는 상관이 없다는 견해도 있어 결론내리기 쉽지 않다.



환하게 웃지만... 24일 낮 63빌딩에서 열린 한나라당 상임고문 주최 오찬에 참석한 이명박, 박근혜 두 대선 주자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명박 "태몽서 보름달 밝아 '明博'"

출생관련 의혹 해명

한나라당 대권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태몽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며 '네거티브 공세' 차단에 나섰다.

이 전 시장은 이날 양재동 교총회관에서 열린 한국공립중학교장회 초청특강에서 "어머니 태몽에서 보름달이 너무 밝아 밝을 명(明), 닦을 박(博)을 써서 이름을 붙여줬는데, 인터넷을 보니 명치유신의 명, 이등

박문의 박자로 이명박이 됐다고 한다"면서 "그러더니 우리 어머니가 일본어자다. 요즘은 우리 아버지가 조총련이라고 한다"며 출생과 관련한 소문을 정면으로 거론했다.

그는 이어 "다른 것은 다 참겠는데, 어머니를 일본 여자로 둔갑시키는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면서 "용서할 수 없는데, 그래도 용서하는 게 유리할 것 같아서 용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與 분당에 한나라 '된서리' 맞나

국고보조금 최대 절반까지 삭감될 수도

연쇄탈당 위기에 처한 열린우리당이 끝내 분당될 경우 한나라당이 '국고보조금 삭감'이라는 뜻하지 않은 유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당이 정계개편 과정에서 몇 개의 원내교섭단체로 쪼개질 경우 한나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게 될 국고보조금이 많게는 절반 가까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24일 선관위 등에 따르면 한나라당이 현재처럼 양당 원내교섭단체 체제가 유지될 경우 올해 모두 225억3천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을 전망이다.

그러나 우리당이 2개의 교섭단체로 나뉘면 국고보조금은 177억8천만

원으로 줄어들고 3개의 교섭단체로 나뉘면 154억원, 최대 4개의 교섭단체로 나뉘면 139억8천만원만 받게 된다.

한나라당의 의석수에 변화가 없는데도 국고보조금 액수에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우선 전체 보조금의 50%를 20석 이상의 원내교섭단체에 균등 배분한 뒤 나머지를 의석수, 총선 득표율 등을 기준으로 지급토록 한 규정 때문이다.

쉽게 말해 한나라당의 경우 의석수나 총선득표율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에는 차이가 없지만, 여당이 분당될 경우 원내교섭단체 숫자가

늘어나면서 원내교섭단체 수에 따른 보조금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다.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가만히 앉아 국고보조금이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만큼 여당 분열을 희희낙낙 바라만 볼 수는 없다.

반면 분당된 교섭단체를 포함한 여권 전체의 보조금은 한나라당이 줄어드는 만큼 상대적으로 늘어나게 돼 대조를 이룬다. 우리당이 4개로 쪼개질 경우 범여권은 한나라당의 보조금 삭감폭인 85억5천만원을 지급보다 더 가져온다는 것이다.

"한나라 가려는 여당의원 있다"

與 탈당 이계안 의원

열린우리당 탈당을 선언한 이계안 의원은 24일 "우리당이 죽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하는 의원들이 대부분"이라며 "시간의 문제이지 결국은 우리당 대부분의 사람들이 탈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나라당으로 가고 싶어하는 의원도 있는가"라는 질문에 "동료 의원들 얘기가기 때문에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역구 사정도 있고, 경제문제에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그런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 배달 미세정품
※ 날개판매, BOX 파격할인
※ 1회 복용(72시간 지속)
▶ 약국납품용 ◀
☎ 010-8695-3948

주유소매매
● 위치: 광주시 북구
● 면적: 대지 200평, 건평 70평
● 매도가: 11억5천만원
(은행대출 7억5천만원 있음)
● 2006년 매출총액: 28억
● 세차기, 홈로리 포함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화 바람
☎ 011-644-3417

우리강산 KALTOUR 제주도 여행상품
● 관광급 HOTEL 2박3일 P.K.G ₩169,000원부터 ~
※ 포함사항: 왕복항공료, 관광1급 숙박 2인 1실, 정가편의, 조식2회, 중식2회
● KAL HOTEL 2박3일 P.K.G ₩229,000원부터 ~
※ 포함사항: 왕복항공료, 관광1급 숙박 2인 1실, 정가편의, 조식2회, 중식2회
● KAL HOTEL 2박3일 하니문 ₩339,000원부터 ~
※ 포함사항: 왕복항공료, KALHOTEL 숙박 2인 1실, 정가편의, 조식2회, 중식2회
● KAL HOTEL 주중 1박2일 골프 투어 ₩399,000원부터 ~
※ 포함사항: 왕복항공료, KALHOTEL 숙박 2인 1실, 조식회, 산구 회원제 그린피 2회
● KAL HOTEL 주말 1박2일 골프 투어 ₩599,000원부터 ~
※ 포함사항: 왕복항공료, KALHOTEL 숙박 2인 1실, 조식회, 산구 회원제 그린피 2회
■ 렌트카 차종별 70% ~ 75% 할인 / 실시간 예약
■ KAL HOTEL 상용 시 무료로 KAL CLUB 또는 비아가 전일 객실로 무료 UP-GRADE(예약시 필수) 신청
■ 롯데호텔 호텔 조식 예약 대행 / 예약 시 비아가 전일 객실로 무료 UP-GRADE(예약시 필수) 신청
(유) 산해여행레저산업 / 문의: 525-0085-6
홈페이지: http://www.우리강산kaltour.com

공인중개사 EBS교육방송 저자직강 출제위원급 최고 교육진

제10회 주택관리사 시험대비

전국수석 배출 2월 1일 첫진도 개강

본원출신 송은영님 96.7점

주택관리사 합격률 1위

제8회 주택관리사 시험 광주지역 합격자 198명 중 본원출신 143명 합격!

광주고시학원 본원 227-8003 (주도청 앞 전일빌딩 뒤) 첨단점 971-0002 빅마트 첨단점 옆 광주은행 4F

화분배 배짚질기 배만 따뜻하게 하십시오. 오장이 튼튼합니다.

부모님께 효도선물로 최고!
★5분 충전으로 2시간 동안 후끈후끈~합니다!★

배전용접질 온도 이외에 허리, 가슴, 어깨, 손, 발, 무릎에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1개 구입시 ➔ 35,000원
2개 구입시 ➔ 60,000원에 드립니다.

문의: 010-9044-1124 양순남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전국수석합격자배출 13,14회 전국 최다 합격자 배출학원

◇ "서울" 새롬행정고시학원 광주 상륙 ◇ 전국 최대규모의 공인중개사전문학원(전국 25개 학원 체인)

교수진 전원 서울에서 출강! ★ TV방송출연 교수진 / 저자직강 ★

개강 2월 1일 첫진도 시작반 (주간반, 야간반) • 재직자 무료 수강생 야간반 60명 선착순 모집

합격률 1위! 새롬행정고시학원 361-8111 서구청앞(농성동)